

전통을 찾아가는 학문적 기행

정병호 지음 「民俗紀行」



문화재위원 정병호 교수가 20여년간 전국을 답사하면서 기록·발굴해낸 민속예능을 글과 사진으로 정리·소개하는 책.

지난 2월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저자는 주로 우리나라 전통춤과 민속예능을 연구해왔으며, 「춤사위」「한국춤」「農樂」「한국민속춤」 등의 비중있는 민속학 관계저서와 「민속무용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농악예능의 상징과 의미에 관한 일고찰」 등의 주요논문을 낸 바 있다.

「민속기행」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제의와 굿' 편은 은산별신제를 비롯, 마티마을 부락제, 장말마을 도당굿, 장산도 셋김굿, 미포마을 별신굿, 동해안 지방의 망령혼사굿, 통영 오구새남굿, 진도 도깨비굿 등이 실렸고, 제2장 '놀이' 편에는 가산 오광대놀이를 비롯하여 양주 별산대놀이, 진도 다시락, 돈지리 향토축제, 밀양 백중놀이, 감천 개술다

리기, 횡성 회다지놀이, 현천 소동패놀이, 풍천 청단놀이, 남원 삼동굿놀이 등이 실렸으며, 제3장 '농악' 편에는 강릉농악을 위시하여 영광농악, 여천 백초리 가장농악, 진도 소포리 농악, 대구 고산농악이, 마지막 제4장 '예인을 찾아서' 편에는 하보경, 이동안, 김숙자, 공옥진 등 우리나라 전통춤의 명인들의 회고와 예술에 대한 탐방기가 수록되어 있다.

전문가들보다는 우리의 것을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속예능을 위와같이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동기, 그리고 전수되어 내려온 내력과 그 예능적 특징을 간결하게 정리해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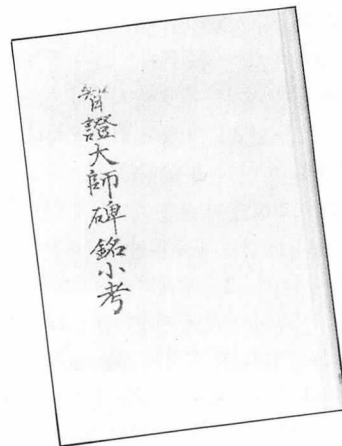
아울러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사진들과 더불어 金笑子, 金秀男, 故 朴辰柱, 박현선, 甲福振, 辛承基, 林成奎, 柳京善 등 작가들의 리얼하고 격조높은 사진들이 다수 첨부돼 한결 현장감을 돋구는 한편 자료집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어주고 있다.

민속학자 임동권씨는 “민족조사는... 의지·시간·돈·건강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저자의 '끼'에 대한 서문을 적어놓았다.

눈빛 / B5 / 190면 / 12000원

비문을 통해 본 한국의 선종

「智證大師碑銘小考」



가 3편, 大師傳 6편, '論' 3편 등의 원문이 실려있다.

“拙僧이 鳳巖에 寓居한 지 數年에 過客들로부터 寺內에 있는 碑名에 관해 물음을 당할 때마다 잘 알지 못하여 부끄러웠고 한편으로 磨損되어 識別키 어려운 碑文을 살펴보매 문득 機感이 暗發하여” 이 책을 엮고 쓰게 되었다고 겸손되이 그 '緣起'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해설을 '識'한 頓然스님에 의하면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해이해진 禪風의 기강과 흐트러진 宗旨를 바로세움”이라고.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에서 지증대사 비명 병서의 번역과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삼국시대의 불교전래, 8세기말경 신라 선불교의 흐름과 교단사의 연구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며, 그 군데군데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독창성을 외면한 채 무조건 중국 조사어록들에 맹종하는 가풍의 근성을 바로잡는 책적을 서슴없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이미 섭렵된 고전의 양과 기술된 논문의 방대함 때문에 삼국불교전래사와 한국선종초기사상발달사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經書院 / A5신 / 740면 / 20000원

지증대사와 정진대사의 비명 및 序를 판독하여 마멸된 글자를 복원하고 번역·주해·해석·연구를 더한 책.

편저자 淨光스님은 회양산 봉암사에 안거하고 있는 '납자'로서 십여년간 이들 비명을 탁본하여 기간된 판본들의 오자·탈자를 바로잡은 필사본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는데 이번 책은 관계된 자료들을 모두 수합하여 정리한 것. 원문 10면, 번역문 28면의 비문이 598면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제1부 '三國佛敎史略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전래에 관한 소논문 19편이 비문의 해석 속에 들어가 있고, 제2부는 신라 선종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소논문 6편을 비롯해 '略抄' '大師傳' '論文' '비명병서의 번역' 등 3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부는 '九山禪門'에 대한 논문 9편, 제4부는 부록으로 지증비명을 위시하여 비명의 원문 3편, 비명원문抄

新法律學辭典

執筆代表 法學博士 李炳泰

-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모든 법역에 걸친 法律用語를 상세히 解説
- 국내 최대 5000여 항목의 용어 수록, 항목 부분의 色度處理로 식별이 용이
- 용어에 해당하는 원어를 최대한 수록, 原書講讀에 편리
- 정부의 법률용어 순화정책에 부응, 가급적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 사용
- “찾는” 辭典임과 동시에 “읽는” 辭典으로서의 기능
- 사전의 전편을 通讀하면 각 法律分野의 대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의 형식

4.6배판 / 1,800쪽 / 미색 보안지 / 케이스入 / 정가 95,000원

TEL 718-9271~2, FAX 702-7953

법문출판사

法學大事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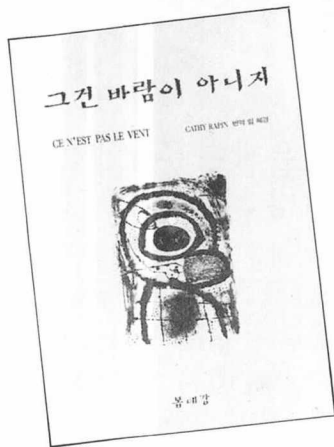
민법사전(上)·민법사전(下)·형법사전·상법사전(上)
·상법사전(下)·노동법사전·등기사전(전7권)

- 국내 법학계의 碩學 40여명의 筆陣이 3년여에 이르는 산고 끝에 집대성한 결정판
- 최신 국내의 학설·판례·개정법률에 따라 법 전문분야에 걸쳐 총망라한 最初의 法學叢書
- 고급장정과 충실한 내용으로 永久所藏本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法學綜合參考書
- 판·검사,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법대 교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
- 사법고시·행정고시·법무사·노무사·중개사 기타 고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實生活에서 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

신국판 / 전 7권 / 80미색 보안지 / 각권 케이스入 / 정가 155,000원

프랑스 여류시인의 제주도 시편

「그건 바람이 아니지」



제주도의 빗방울이 “미 라 레 솔……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감각은 우리에게 매우 신선하면서도 이국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8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여대 불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프랑스인 여교수 까미 라뵘의 시집 「그건 바람이 아니지」는 그런 분위기로 충만해 있다.

그녀는 「종이의 그림」 「육신의 언어」라는 시집을 파리에서 낸 바 있으며 세번째 시집 「소란, 휴지, 푸가」를 역시 프랑스에서 근간 출판할 예정인데, 이 시집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쓴 세권의 불어 시집 중에서 ‘제주도 시편’만을 추려낸 번역한 시선집.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제주도 시편을 썼다는 이색적인 사실이 독자들에게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며 작품 외적인 여러 흥미거리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진가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작품의 내적인 논리와 흐름을 살펴본 ‘해설’은 이 작품집에 대한 꼼꼼한 지형도 구

실을 하고 있다.

이 해설을 쓰고 이 작품집을 번역한 이는 ‘폴 발레리 문과대학’에서 로트레아몽 작품연구로 불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불문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임혜경씨.

총 48편이 수록된 「그건 바람이 아니지」는 ‘제주도의 가을’이 각각 시적인 공간과 시간을 이루고 있으며 삼각형과 원의 이미지로써 제주도를 “풍요로운 자연이 우세한 원초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예를들어 저 멀리서 본 한라산은 시인의 상상적 시각속에서 ‘대양의 피라밋’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삼각형, 신화적인 삼각형 무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법은 역자의 해설에 의하면 “아주 독창적”인 것이다.

「하루방-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시의 소재목은 ‘그는 시선이 끝나는 곳에 있는 시선이다’, ‘그는 언어가 부는 곳에 있는 언어이다’인데 다음은 후자의 한 구절.

“왜냐하면 그(하루방)는 바로 / 오래 전의 당신이다 / 왜냐하면 그는 미래를 불안해 하던 / 바로 당신이다”

이러한 감각은 ‘한국의 하와이’ 또는 ‘반란의 섬’으로 표징되던 제주도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롭고도 독특한 시사를 던져준다.

봄테강 / B6신 / 162면 / 3000원

연극관람 전단계로서의 책임기

「모두를 위한 셰익스피어」 시리즈



영국 체리트리사가 9세에서 15세사이의 아동·청소년들이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친근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출판한 것을 교육문화사가 독점계약, 한국어로 출간하였다. 번역은 이화여대 영문학과 최영 교수.

지은이 제니퍼 몰러린은 “이 책은 여러분에게 연극의 배경을 알려주고, 극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연극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썼다고.

이 시리즈는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 「한여름 밤의 꿈」, 제2권 「햄릿」, 제3권 「맥베스」, 제4권 「로미오와 줄리엣」, 제5권 「베니스의 상인」, 제6권 「제12야」, 제7권 「뜻대로 하세요」, 제8권 「율리우스 시저」, 제9권 「리어왕」, 제10권 「오셀로」, 제11권 「리처드 3세」, 제12권 「폭풍우」. 현재 제4권까지 나온 이 시리즈는 앞으로 매월 한권씩 출간된 예정이

라고.

각 권은 그 작품이 씌어진 배경 설명, 줄거리, 등장인물 묘사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아름다운 그림과 유명한 인용구가 곁들여져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을 도와준다.

작품이 씌어진 배경에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어 작가와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며, 줄거리는 원작 그대로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국민학생·중학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울퉁불퉁에 호화표지 장정을 했으며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들에 관련된 명화들과 로저 페인이 그린 그림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연을 봤을 때만 어찌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극작가이고 시인인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은이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문화사 / 규외 / 각 40면 내외 / 각 38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우화는 파라독스다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훌렁훌렁 읽는 책 (빌려서 보십시오)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차근차근 읽는 책 (사서 보십시오)

우화를 뒤집어서 거꾸로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두고두고 읽는 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어쨌든 누구나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읽는 책 (서점에 있습니다)

루원 외 22인의 중국 현대 작가가 쓴 우화 선집
이효림 엮고 옮김 / 3,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지금, 문명에 찌든 이 도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

3만 년 전 — 자연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던 아득한 원시시대에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자신을 지탱해야 했던 여자 아일라. 별거숭이 계집아이로 고아가 되어, 낮은 종족의 품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소녀, 여자, 인간 아일라. 그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가 보고 싶다. 지금, 문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 —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진 아우열 장편소설 / 황보석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